



## 파인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의 만남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함을 간직한 랑데부 컬렉션에서 세 가지 새로운 모델을 선보입니다. 파인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의 또 다른 놀라운 만남을 이루어낸 이 아이코닉 피스들은 워치메이킹에 대한 예거 르쿨트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요세, 쟈세팅, 장식 기법과 같은 그랑 메종의 진귀한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장식 예술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모델은 클래식해 보이는 외관 안에 여성스럽고도 대담한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여성을 위해 태어난 랑데부 컬렉션만의 이상적인 기능으로 재해석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 순간을 진귀하고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줄 랑데부 컬렉션의 새로운 타임피스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랑데부 투르비용**

###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눈부신 아이코닉 컴플리케이션

새로운 랑데부 투르비용은 눈부신 광채와 절제된 디자인이 조화된 세련된 타임피스로 또 한 번 전 세계 여성들을 매료시킵니다. 6시 방향에 자리 잡은 투르비용은 경이로울 만큼 복잡한 기어 시스템과 수공예 기법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이는 투르비용의 밸런스 휠은 60 초마다 한 바퀴씩 회전하는 캐리지 안에서 진동하며, 고정밀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78 을 힘차게 박동시킵니다.

### 수백 년에 걸친 워치메이킹 전문성

랑데부 투르비용은 그 이름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타임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랑 메종의 엔지니어와 장인들은 모든 피스를 저마다의 고유한 미학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며,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매혹적인 디자인으로 시계 애호가들을 매료시킵니다. 베젤 위에서 반짝이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후광, 그리고 다이얼 중앙의 작은 스케일과 투르비옹 주변에 세팅된 다이아몬드는 눈부신 광채를 더해줍니다. 매뉴팩처의 장인들에 의해 수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장식은 그랑 메종의 숭고한 유산을 보여줍니다. 수공으로 세팅된 215 개의 다이아몬드는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공방에서 수많은 시간의 정교한 수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핑크 골드 버전의 새로운 랑데부 투르비옹 모델은 마더오브펠의 오묘한 무지갯빛 광채와 다이얼 중앙에서 퍼져나가는 방사형 라인으로 섬세하고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발산합니다. 고귀한 소재로 완성된 시계는 여성의 손목 위에서 시간의 흐름을 기념하는 매혹적인 주얼리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 **랑데부 셀레스티얼**

### **정교한 칼리버를 비추는 별빛**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09/1 을 장착한 두 가지 새로운 랑데부 셀레스티얼은 컬렉션의 이름을 완벽히 구현하는 아이코닉 기능을 선보입니다. 천체의 변화를 표시하는 동시에 신비로운 별 인디케이터는 약속 시간을 상기시켜줍니다.

### **정교한 시계와 하이 주얼리의 만남**

여성용 컴플리케이션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별자리가 수놓아진 다이얼은 핑크 사파이어와 자수정의 그라데이션 톤으로 세팅되거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세팅된 눈부신 베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움직이는 별 인디케이터가 세팅된 다이얼은 별자리의 움직임과 황도 12 궁을 표시합니다. 핑크 골드



또는 실버 톤으로 에나멜 처리된 천체 디스크는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을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구현합니다.

고귀한 보석으로 세팅된 베젤에 이어 에나멜 처리된 플로럴 숫자와 12 개의 별자리는 진귀한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예술을 선보입니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세팅된 두 가지 주얼리 위치는 밤이 되면 조명 아래서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새로운 세 가지 모델들은 모든 면에서 하이 주얼리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2012 년 매뉴팩처 공방에서 처음 탄생한 컬렉션을 완성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의 여성들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기 위해 탄생한 랑데부 컬렉션은 고귀한 보물과도 같이 눈부신 빛의 옷을 입고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합니다. 고정밀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켄 세팅, 정교한 마감, 대담한 플로럴 숫자가 어우러져 또 하나의 눈부신 랑데부를 완성합니다.

---

### **예거 르쿨트르의 세계**

예거 르쿨트르는 1833 년 스위스 산맥의 발레 드 주 계곡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창립 이후부터 모든 시계를 시계 명장들이 무브먼트에서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만들어 조립합니다. 여기에는 독창성과 의지, 성실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갈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

[www.jaeger-lecoultre.com](http://www.jaeger-lecoultre.com)